

KT 데이터센터 ‘용산시대’ 활짝… 디지털혁신 가속화

‘KT DX IDC 용산’ 완공

10만대 이상 대규모 서버 수용
국내 최초 100Gbps 속도 제공
국내외 클라우드 직접 연결 가능
비상상황 대비 변전소 이원화
54kV 대용량 수전전압 등 갖춰

KT가 서울 용산에 13번째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디지털혁신(DX)에 나선다.

KT는 서울 용산구에 ‘KT DX IDC 용산’(이하 용산 IDC)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용산 IDC는 연면적 4만8000m²에 지상 7층, 지하 6층 규모를 갖췄다. 8개 서버실에서 10만대 이상 대규모 서버 운영이 가능하다. 10만 서버는 국립중앙도서관 3만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용산 IDC는 국내 최초로 IDC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회선으로 100기



일 오후 열린 용산 IDC 개관식에서 KT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오픈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T engcore 박은수 사장, KT IT부문장 신수정 부사장, KT 기업부문장 박윤영 사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 국회 과방위원회 이원욱 의원, KT 대표 구현모 사장, 용산구 권영세 의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국장, KT 경영기획부문장 박종우 부사장,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 /KT

가비피에스(Gbps) 속도를 제공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KT의 IDC(용산, 목동, 강남, 분당)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IDC 형태로 구성하고, 최대 네트워크 경로를 8개로 다원화했다.

이를 통해 한 곳의 IDC에서 갑작스럽게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해도 인접 IDC를 경유해 백본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 중심인 용산에 위치해 구로, 혜화 등 주요 통신시설과 인접해 인터넷 속도, 대역폭 지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용산 IDC는 초연결 교환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국내외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또 로컬 기기와 클라우드가 혼합된 IT 환경에서 KT 전문인력들이 운

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매니지드 서비스프로바이더(MSP)’도 제공한다.

용산 IDC는 확장성을 강화했고, 전력 소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냉방비를 개선했다. 냉수식 항온기, 냉수식 프리쿨링과 더불어 냉각팬, 인버터 방식의 고효율 설비를 갖춰 냉방용 전력비를 기존 대비 20% 이상 절감할 수 있

다. 이는 연간 2만6000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연간 385만 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다.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다. 국내 IDC 최초로 변전소 이원화, 서울권역 IDC 최초로 154kV 대용량 수전전압을 갖췄다. 서버실 무기동 구조 등을 도입해 특등급의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비했다. 또한 출입문부터 서버실까지 4단계 보안 시스템으로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4일 오후 열린 용산 IDC 개관식에는 KT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강중협 회장,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국장 및 주요 고객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T IDC 사업의 비전을 설명 받고, 용산 IDC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항공업계 3분기 FSC ‘울고’ LCC ‘웃을까’

코로나 여파 호실적 기대 어려워
국내선 경쟁력에 LCC 우세 예고

다음 주 항공업계가 줄줄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항공사 간 회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다음 주부터 잇따라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오는 16 일까지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전 항공사가 3분기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다수 항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9개월째 국제선 대부분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항공업계 실적이 크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항공 수요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3분기 역시 국제사를 이



대한항공 항공기

용한 전체 여객 수는 761만2911명으로, 전년 동기 2367만5042명 대비 약 68% 감소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대폭 줄며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상반기 기준 비상장사를 제외한 항공업계의 적자는 총 671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사는 국내선 네트워크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장거리를 비행 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어 국내선의 신규 취항으로 적자를 최소화하고자 했

다. 이에 따라 실제 국내선 여객 수가 줄어든 FSC와 달리, 저비용항공사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국내선 여객 수는 508만8496명으로, 지난해 동기 482만6522명을 넘어섰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 국내선 여객 수는 211만4013명으로 지난해(360만7468명)보다 약 41% 줄었다. FSC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LCC가 우세한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기에 저비용항공사가 흑자 전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자 폭이 전 분기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화물 시황이 3분기가 조금 더 낮아져 있어, 2분기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흥건설, 올해 도시정비 1.1조 수주 달성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등 수주

중흥건설그룹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1000억원을 달성했다.

중흥건설그룹 계열사 중흥토건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종회에서 포스코 건설을 주간사로 신동아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사업은 아파트 3219가구와 오피스텔 218실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204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오는 2024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7000억원이다.

중흥토건은 올해 부산 효성재건축 221가구, 천안 문화구역 833가구, 서울 봉천2구역 254가구, 대전선화1구역 1828가구, 서울 길훈아파트 220가구, 구미송림아파트 249가구, 창원 상남산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감도

호구역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5288가구 등 도급액 1조1553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정비사업 분양실적은 2017년 광주송정주공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1200여가구를 포함해 광주 유동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사업, 광주 임동2구역재개발사업, 광주 계림8구역 도시정비사업 등 1만여가구를 조기 완판 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 성과를 거뒀다.

/이규성 기자 peace@

“시멘트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세요”

삼표그룹, ‘스마트오더’ 도입
주문 실적 따른 보상 제공도

음식처럼 시멘트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열렸다.

삼표그룹은 고객들의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전화·모바일 주문을 통합한 ‘삼표 스마트오더’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삼표 스마트오더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기존의 주문은 영업 직원을 통한 전화통화, 통합 주문 홈페이지 등으로 각각 나뉘 진행됐다. 이번에 도입된 삼표 스마트오더는 흩어져 있던 주문 프로세



삼표그룹이 전화·모바일 주문을 통합해 도입한 ‘스마트오더’.

스를 한데 모아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재미’ 요소를 통해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효과가 있다. 삼표 스마트오더는 고객의 주문 실적에 따라 랭킹 시

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한다.

스마트오더는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채널로도 활용된다. 삼표그룹은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올해 초 고객지원팀을 신설해 스마트오더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고객지원팀은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부터 고객 정보·상담 내역·불만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직 내 다양한 영역에 산재하는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스마트오더를 통해 접수된 고객 클레임은 통합 마케팅 회의에 공유, 개선책을 모색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 코세페 동참… 간절기 상품 할인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인기상품 판매

에몬스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세일 행사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16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에몬스는 침대, 소파, 옷장, 식탁, 거실장 등 상반기 인기 상품과 온열 침대, 소파 등의 간절기 상품을 이달 30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출시 이후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보였던 아도니스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는 이태리 1등급의 통가죽과 깊이감이 느

껴지는 컬러감으로 원터치 작동, 키즈 락 버튼, USB포트 등의 다양한 기능이 편안하고 편리한 휴식을 제공한다. 소파와 벽 사이 공간이 필요없는 퍼펙트 제로월 시스템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아도니스 전동 리클라이너 4인 소파는 69만원 할인된 202만원에 제공한다.

아델 침대는 45단계의 섬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형 침대로 이태리 가죽을 사용해 고유의 질감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고급사양의 침대다. 라지킹(LK), 킹(K), 슈퍼싱글(SS) 사이즈로 구성되며, 킹(K)사이즈 기준 132만 원에서 99만원으로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